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와 기능의 의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¹ 서울대학교 언어학과²

목정수¹ · 조수경¹ · 한선혜¹ · 김윤신¹ · 이정민²

The Pattern of the Passive Construction in Korean and its Semantics

Mok Jung-soo,¹ Cho Soo-kyung,¹ Han Seon-hye,¹ Yoon-shin Kim,¹ Chungmin Lee²

Institute of Humanities,¹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Linguistics,²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요 약

한국어 피동구문에서 출현하는 ‘가형 성분’에 대해 어떤 통사적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사 자체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구문 분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고에서는 논리명제적 차원에 머무는 분석보다는 언어의 발화행위 차원을 고려하여 문장의 형식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장을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인칭과 서법 요소들을 통해서 볼 때, 문장 성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피동동사’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서 론

한국어의 피동사라고 하는 어휘들은 하나의 형태를 통해 ‘피동적’인 의미와 ‘사동적’인 의미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저 건물이 보이냐?’ vs. ‘아빠한테는 그거 안 보여 줄 거야’. ‘모기한테 몇 방을 물렸는지 몰라’ vs ‘우는 아이 젖 좀 물리소 마’. 따라서 소위 ‘이/히/리/기’ 등의 접사가 붙은 동사들은 그 자체로서는 피동과 사동의 뜻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 동사가 실현되는 구문의 틀에 의해 그 의미가 피동이나 사동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피동의 의미로 실현된 문장에서 그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한국어 구문분석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X-가 Vpass-어미’의 형식으로 실현된 문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능동과 수동이라는 논리적 관계에서의 명제 내용 파악을 넘어서서 문장이 실현되는 인칭(person)과 서법/양태(modality)를 고려했을 때 문장 구조의 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본 연구는 필연적으로 소위 ‘이중주어 구문’과 연계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조사 {이/가}에 대한 새로운 지위 규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어 피동문의 기본 구조가 ‘(Z-는) X-가 Vpass-어미’로 파악되어서 {X-가}가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다시 그 피동이라는 논리적인 의미보다는 양태(modality)의 측면에서 ‘가능(potential)’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어의 수동태/가능태 논의와 불어의 대명동사 용법 등의 논의를 통해 방증될 수 있다.

한국어 타동사문의 경계

1. 한국어 타동사 설정 기준의 문제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능동문, 타동사 구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 타동사문을 규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X-를} 형태의 목적어 성분의 사용/출현 여부이다(연재훈, 1997) 참조).

1) X-가 고개를 숙이다-?*X-가 고개가 숙이다.

2) X-가 친구를 기다리다- *X-가 친구가 기다리다.

그러나 {을/를}이 나타난다고 타동사로 단순히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질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을/를}

E-mail : heunmok@linguist.snu.ac.kr

E-mail : skung@unitel.co.kr

E-mail : minmin92@hanmail.net

E-mail : SNU, yoonshin@snu.ac.kr

E-mail : cleee@snu.ac.kr

자체를 '목적격조사/대격조사'로 보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많다.¹

- 3) (1) 강원도로 놀러를 갔는데,
(2) 학교에를 뛰하러 가는갑?
(3) 도대체 빨리를 안 가고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냐?
(4) 뭘 그 문제를 아직도 풀리지가 않았다고?²

또한 똑같은 자리에서 {을/를}이 {이/가}와 교체되는 현상도 이미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지적된 바 있다.

- 4) (1) 귀가 먹었다-귀를 먹었다
(2) 손목을 빼었다-손목이 빼었다
(3) 손목을 잡혔다-손목이 잡혔다
- 5) (1) 철수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철수를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2) 떡이 먹고 싶어-떡을 먹고 싶어
- 6) (1) 시골티가 벳다-시골티를 벳다 (get smart)
(2) 어깨를 들먹거리다-어깨가 들먹거리다
(3) 비를 퍼붓다-비가 퍼붓다

지금까지 우리는 {을/를}의 여부만을 가지고 타동사를 규정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가}도 반드시 주어와 연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가}가 붙은 성분이 어떤 통사적 기능을 갖는가를 판단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피동문 구성에서 {X-가} 성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성분을 주어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목적어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동문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다른 동사 부류를 통해 한국어 문장의 전체 구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외형적으로 피동문과 동일한 문장 패턴을 보이는 동사부류로는 기술동사(기존의 성상형용사)와 주관동사(기존의 심리형용사)를 들 수 있다.

2. 기술동사와 심리동사의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

피동문의 구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기술동사와 주관동사와 결합하는 '가형 성분'이 목적어로 분석/해석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하여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자.

먼저,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 본다. "너 돈 좀 있냐?", "철수가 머리가 아픈가 봐", "짬뽕이 그렇게 싫으냐?"에서 {돈}, {머리}, {짬뽕}의 통사적 기능(=문법관계)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

주어라고 보는 쪽이 가장 많을 듯하다. 이 편의 논리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가}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는 주격조사니까 당연히 {돈}은 {돈이}의 생략형으로서 주어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단순한 질문 하나 던져 보자. "{돈}을 주어로 봐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돈}을 주어로 보고 그 문장을 외국어, 예를 들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가?"

보어라고 보는 측에서는 동사 {있다}가 행위성이 약하고 {을/를}을 취할 수 없으므로 {돈}을 목적어로 볼 수 없고 필수 성분을 고려하여 '보어'라고 할 것이다.^{3,4} 그렇다면, 비교론적 시각에서 인구어에서 {have}류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지배하는 명사구 성분은 뭐라 해야 할 것인가? ((Benveniste, 1966), 각종 외국어 사전 참조).⁵

우리는 위 두 입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목적어, 목적보어'로의 해석 가능성이다. 우리는 기술동사 {있다, 없다, 파랗다, 깨끗하다...}나 주관동사 {좋다, 싫다, 그렇다, 무섭다, 시원하다, 답답하다...} 바로 앞의 {이/가} 성분이 '목적어'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존재 표지 {(으)시}를 통해 밝히고, 이러한 동사들이 실현된 문장 구조와 동일한 문장 구조 속에서의 피동사에

1 조사 {을/를}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지적과 연구가 있었다. (이광호, 1988), (임흥빈, 1998), (김거화, 1994) 등등. (연재훈, 1996, 1997)은 한국어 타동사를 설정함에 있어 {을/를}이 보여주는 이질적인 모습들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필자는 한국어 예를 다룸에 있어 문법성 판단에 대한 이태올로기 문제를 한번쯤 명시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느낀다. 필자는 특히 {이/가}와 {을/를}의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제시되는 문장의 수용성 판단이 이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다음 문장들을 고려해 보면, {이}와 {를}의 문법성 판단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i) 꼬끼리가 코가 길다. cf. 꼬끼리는 코가 길다.
(ii) 철수가 동생이 떡이 먹고 싶다.
cf. 철수는 떡이 먹고 싶은가 봐. 너 떡이 그러도 먹고 싶냐?
(iii) 뭘 날 죽었다고? cf. 내가 죽을 거 같냐?
(iv) 순간 열이 팍 받는 거야 미치겠더라구. cf. 편지를 받다.
(v) 철수가 영희에게 미희의 소개한다.
cf. 너 나한테 미희 소개는 언제 해 줄 거야?

3 남승호(2000)에서는 논항의 필수성 여부를 의미·화용론적 관점에서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너 있나?] 어, 그래 #근데, 뭐가 있냐고?

4 일부 국문법에서 보어란 개념은 동사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을 보어로 인정할 때 사용된다(21세기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 조사/어미 분과 연구보고서, 2001,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5 필자는 영어의 'have'동사에 대응되는 전형적인 한국어 동사는 {있다}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지다}를 대응형으로 삼고 있는 것은 'have'를 타동사로 보고 한국어에서 '유틸타동사를 찾았기 때문에 {가지다}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have a book=책을 가지다 → 책이 있다.

영어학술서이나 사전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실례로 "뜯어먹는 중학영단어 1800"에서 {have}의 대역어로 {가지다, 가지고 있다}를 제시하고, 뒤에 가서 활용하는 연습문제에서는 "너는 시간이 많지 않다"를 영어로 옮길 때 사용해야 할 동사로 {have}를 고르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대로 옮겨본다. "Ⅱ.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라. 1. 너는 시간이 많지 않다. → You don't () much time."

대해서도 동일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 피동사의 의미를 ‘피동’이 아닌 ‘가능’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동사구 설정의 범위

전통적으로 명제는 주부와 술부로 구성되어 있고, 술부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를 명명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술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타동사+목적어’를 VP 노드로 묶는 것의 보편타당성을 통해, 절과 구 구성의 차이점을 밝히고 동사의 기본 의미 단위가 단어(word) 차원이 아닌 구(phrase)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해 본다. 이는 결국 이중주어 구문 논의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서술절 설정의 타당성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사의 다의성(polysemy) 논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동사의 의미는 그 자체로는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명사와 연결되어 사태를 명명하는 순간 그 동사의 의미 단위가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 전에서 보듯이, {떡다}의 기본의미로 ‘①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 의미라는 것도 사실은 {음식(을) 떡다}라는 연결 속에서의 {떡다}의 의미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사는 그것이 무엇 무엇과 구체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의미를 발현하는 것으로 보아, 동사의 의미단위는 [N+V] 구성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명사와 동사의 결합에서 해당 동사의 의미질에 따라 조사가 결정될 수는 있지만 이 조사가 두 단위의 결합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N(을) V] 또는 [N(이) V] 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러한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사건이나 사태를 명명하는 자격을 갖게될 때, 그 두 단위의 결합을 ‘단어결합’이라 하고 그 단어결합은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하는 게 이론적으로나 응용적으로나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조의성, 1995, 2001), (노마, 2002) 참조). 그렇다면 ‘N+V’ 구성은 VP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VP 구성의 N이 통사적으로 주어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언어보편적으로도 N이 주어로 해석되는 경우는 주로 문장 S—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명제(proposition)를 말함—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S → N(P)+V]

예를 들어, {맛(이) 있다}, {빛(이) 나다}, {심성(이) 굽다}, {돈(이) 많다}의 구성이 어떤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idiom, chunk, collocation)로 굳어졌거나 굳어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맛, 빛, 심성, 돈}이 {있다, 나다, 굽다}에 대해 주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맛(이) 있다}, {빛(이) 나다}, {심성(이) 굽다}, {돈(이) 많다}가 하나의 단위로 명명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VP의 내부 구성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성분이 되는 {맛, 빛, 심성, 돈}은 V와 결합하여 S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VP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이(시장에) 있다}, {고사리가(산에서 많이) 나다}, {철수가(심성이) 굽다}, {미국이(돈이) 많다} 등에서 {사람이 있다}, {고사리가 나다}, {철수가 굽다}, {미국이 많다}는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N자리에 오는 것들이 다 주어로 해석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코가 길다]라는 구성은 하나의 구구성(VP)이나 하나의 단어결합 차원에 머무는 것이지 그것은 문장(=명제) 차원의 구성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코(가) 길-]은 [죽(을) 먹-]와 통사 구조가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대기(가) 무섭-], [고향(이) 그림-]의 통사 구조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 5) (1) N₀는 [밥(을) 먹다]-[욕(을) 먹다]-[더위(를) 먹다]-[화장(이) 먹다]...
- (2) N₀는 [코(가) 크다]-[눈(이) 크다]-[키(가) 크다], [집(이) 크다]...
- (3) N₀는 [호랑이(가) 무섭다]-[벌레(가) 무섭다]...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와 그 의미 해석

1. 피동문과 주관동사 구문의 평행성

한국어의 피동문을 논리적으로 상정해 보면, 해당 타동사의 대상이 자리를 바꿔 구성될 수 있는 구문이면 다 피동문 구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 대상은 주어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 (1) 건물을 보다 → 건물이 보인다
- (2) 물건을 도둑질하다 → 물건을 도둑질맞다
- (3) 누구를 존경하다 → 누구가 존경받다
- (4) 책을 읽다 → 책이 읽어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구성이 문장 전체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건물이 보인다’에서처럼, 피동접사에 의해 파생된 {보이다} 동사는 다른 성분이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실현된 문장으로도 많이 나타난다.

- 2) (1) 난 건물이 잘 안 보이는데, 넌 잘 보이니?
- (2) 이상하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신문이 잘 안 읽히지.
- (3) 철수는 요즘 논문이 잘 안 써지나 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문장의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주관동사를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이는 피동문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관동사는 논항구조 상으로나 의미역의 관점에서도 경험주(=주어)와 대상(=목적어)를 요구하는 두자리 술어나 경험주만 요구되는 한자리 술어가 된다. 또한 이 동사부류는 의미상 행위자 인칭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

- 3) (1) 음악이 그리 좋나? = You like music so much?
- (2) 어 무지하게 좋아. = Yeah, I like it so much.
- (3) 음악이 싫대. = he doesn't like music
- (4) 선생님, 음악이 싫으세요? Mr., do you dislike music?

(5) 할아버지는 재즈를 싫어하신다. Grandfa doesn't like jazz

- 4) (1) 와 추워라! = Uh j' ai très froid!
- (2) 배고프니?
- (3) 아이구, 똥마려워.

주관동사의 경우는 인칭제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정민, 1976), (노용균, 1989) 참조), 단어 결합에 의해 하나의 동사처럼 행동하는 {맛있다}의 경우는 주어의 인칭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5) 이 케익은 맛(이)있다. This cake has a taste. → This cake is delicious. ← 한자리술어(기술동사적으로)

6) 너는 짜장면이 맛있니? → Do you enjoy X? ← 두자리술어(주관동사적으로)

7) 저 중국집은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 That chinese restaurant serves delicious X. ← 두자리술어(기술동사적으로)

2. 피동동사

한국어 피동 표현의 형식으로는 '이/히/리/기'의 접사와 생에 의한 것, '-어 지다' 구성에 의한 것,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의 기능동사에 의해 것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의 두 가지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한국어에는 앞절에서 본 본유적인 주관동사 이외에 파생적 절차에 의해 형성된 파생동사들이 주관동사와 유사한 동사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소위 피동의 접사 '이/히/리/기'가 그러한 역할을 해 준다. 이와 같은 피동접사가 붙어 형성된 동사 중에는 주동사와의 관계가 규칙적이지 않고 의미적으로도 불투명한 관계를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들 동사가 단순히 능동-피동의 동사적 절차에 의해서만 기술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동사들은 독립된 동사로 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있고, 그 논항구조

가 독자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생각해 보자.

- 1) (1) 저 글씨 잘 보이니?
cf. 재즈 싫으냐?
- (2) *저 글씨 잘 보이시니?
cf. *재즈 싫으시니?
- (3) 그 논문이 잘 읽히더냐?
cf. 재즈가 그리 좋더냐?
- (4) *?할아버지께서는 내 논문이 안 읽히신다.
cf. *?할아버지는 재즈가 좋으시다.
- (5) 나는 네 목소리가 안 들려. 좀 크게 말해.
cf. 난 재즈가 안 좋아. 띠 음악 좀 틀어라.

다음의 복합문들도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을 해야만 문장의 계층구조나 인칭 관계가 잘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1) 나는 동생이 자꾸 눈에 밝혀서, 일이 잘 안 돼.
- (2) 철수는 귀신이 씩꿨나 봐. 행동이 좀 이상해.
- (3) 귀신(이) 들렸는지 자꾸 헛것이 보입니다.
cf. ??귀신에 들리다

다음의 '가형 성분'이 나타나는 복합문 구성과 대비해 보면, 그 구조의 평행성이 잘 드러난다.

- 3) (1) 내내 뒤척이다가 새벽잠이 들어 한 12시경에 일어났어.
- (2) 여기서는 금방 일자리가 나서지 않을 것 같아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⁶
- (3) 나는 혼처가 빨리 안 나서서 걱정이야.
- (4) 빨리 혼처가 나서서야 결혼도 하시고 안정이 되실 텐데요.
- (5) 철수는 혼처가 나서기만 하면 바로 장가 간단다.

4. [어지다] 구성

보조동사{-어지다} 구성도 '가형 성분'과 잘 어울린다. 일반 타동사의 '를형 성분'이 '가형 성분'으로 바뀌면서 태

6 고평주(2001)에서 주장했듯이, {혼처가 나서다}는 '능력=비대격 동사'라는 동사로 분류될 것인데, '대격, 비대격, 능격, 비능격' 등의 서구학자들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용어가 잘못 쓰이고는 있지만, 그러한 동사 부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할 것 같다. 비대격동사들은 그 앞에 [비행위성=무정성] 명사 또는 [행위성명사=유정성] 명사가 음에 따라, 그 동사의 논항구조가 달라진다. {나서다}의 논항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겠다.

- (1) NO N1-에 나서다: [에 나서다]라는 구동사 또는 [-에]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동사
ex) 철수가 직접 그 일에 (발벗고)나섰다. / 당신이 직접 그 일에 나서시겠습니까?
- (2) (NO) N1-이 나서다: 두 자리 기술동사 (없다, 있다, 크다, 작다, 길다... 류)
ex) 나는 혼처가 나서면, 금방 장가가고 싶다.

와 상의 의미에 관여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구성에서 ‘가형 성분’이 모두 목적어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어미에 의해 행위자가 분명한 경우나 명시적인 행위자 명사가 외현된 구성 즉 […는 …가 V어지다] 구성에서 ‘가형 성분’을 목적어로 분석한다. 이러한 구성에 실현될 수 있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 (을) Vt]의 논항구조를 갖는 타동사이다.

1) (1) 나는 요즘 글이 잘 안 써진다. I can't write well these days.

(2) 왜 요즘 글이 잘 안 써지십니까? Oh, can't you write well these days?

(3) 요즘 글이 잘 안 써진다니? You heard he can't write well these days?

2) 어 문이 잘 안 열리지네. Wow, I can't manage to open the door.

5. {시}와 행위자 주어

피동 구문에서 ‘가형 성분’을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주어로 파악되는 다른 성분이 복원되거나 찾아져야 한다. 여기서는 존대표지 {시}를 통하여, {시}를 막연히 ‘주체존대’ 요소로 보는 것보다, ‘주어(=행위주) 지시(=존대) 요소’로 파악하면, {시}에 의해 지칭되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행위주가 주어로 해석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이/가} 성분의 통사적 기능이 목적어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의 타당성을 살펴보자.

첫째, 주관동사의 경우에 확실히 ‘가형 성분’이 대상역(theme)의 의미역을 할당받는 목적어로 분석되는 것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⁷ 기술동사의 경우도 ‘가형 성분’이 {시}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주어보다는 목적어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⁸

7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와 같은 주관동사의 경우 기저구조를 [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로 잡고 [나에게]를 여격주어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연재훈, 1997, 1998), 우리는 이러한 시도도 기본적으로 {이/가}를 주격조사로 보는 시각과 형태와 의미 기능을 혼동하는 시각에서 연유한 것으로 파악한다.

8 혹자는 ‘철수는 어머니가 예쁘시다’,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등의 예를 들어 이러한 이중주어구문에서는 두 번째의 ‘N’가 주어라고 분석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러한 문장이 코퍼스 상에서 얼마나 출현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문장이 등장한다면, {시}와 일치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이므로 이들이 주어라고 보고, ‘철수’는 앞에 그냥 말을 시작하다가 다른 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던져진 말이라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로 대역할 때는 그냥 해당 대역을 앞에 추가만 해 주면 된다; Paul... (his) mom is beautiful. Paul... (his) father died. 실제로 이러한 문장보다는 ‘철수는 아버지가 학교에 오셔서 무척 행복했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나타난다.

1) 이 그림(이) [마음에 들]-세요?

목적어 주관동사 주어(굴절 2인칭)

this picture like you → Do you like this picture?

2)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부름말 의문사 행위동사 주어(굴절 2인칭)

grandfa, where go you → Grandfa, where do you go?

3) 어머니는 눈이 [파랗]-시-다.

주어 목적어 기술동사 대명사인칭

mother eyes have_blue she → My mother (she) has blue eyes.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와 행위자 주어가 일치한다고 보면, 위에서 언급한 피동문 구성의 {시}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고, 이러한 구성에 나타나는 ‘가형 성분’은 주어보다는 목적어로 해석하는 게 전체 구문 분석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6. 피동동사의 의미

피동동사 구문의 기본 구조를 ‘X-는 Y-가 Vpass-어미’로 보고 {Y-가} 성분을 목적어로 해석한다면 피동동사의 기본의미에서 논리적인 피동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도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파생접사라는 것이 ‘능동-피동’의 의미관계를 전환시켜주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처럼 ‘가형 타동사’ 구성에 실현된 피동동사, 더 정확히는 피동동사 파생접사는 기본적으로 ‘가능(potential)’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앞에서 제시한 예에 대한 대역으로서 조동사 {can}을 사용한 이유는 거기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피동’의 의미와 ‘가능’의 의미가 하나의 동일한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는 일본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rareru} 구성은 그 동사가 실현되는 전체 문형 구조에 의해 ‘피동적’ 해석과 ‘가능적’ 해석이 결정되는 것이다.

1) (1) 今日は新聞がよく読まれないよ。

(2) 私は雨に降られた。

(3) あのビルは1956に建てられた。

결론

우리는 한국어 피동구문을 논리명제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때,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문형의 문제를 ‘가형 성분’을 중심으로 제기해 보았다. 논의의 발단은 조사 {이/가}에 대한 기존 정의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어 문장을 파악하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조감도가 다음과 같이 짜여져야 할 것을 제안해 본다.

REFERENCES

강은국(1993) : 조선어 문형연구, 박이정 영인본
 고광주(2001) : 국어의 능력성 연구, 월인
 고영근(1993) :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국립국어연구원(1999) :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권재일(2000) : 한국어 통사론(개정판), 서울 : 민음사
 김귀화(1994) : 국어의 격 연구, 한국문화사
 김영주(1995) : 주어 탈락 현상의 언어간 비교와 이론적 모색,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pp264-280
 김홍규·강범모(2000) :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남기심(1986) :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1993) :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남승호(2000) : 한국어 이동동사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pp229-281, 소화
 노마 히데키(1996) : 한국어 문장의 계층 구조, 언어학 19 : 133-180
 노마 히데키(2002) :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태학사
 노용균(1989) : "Existential Quantification of Experiencer : Person Constraint on Emotion Verbs and Zero Anaphora",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Harvard University
 리근영(1985) : 조선어리론문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탑출판사에서 북한자료총서로 영인
 목정수(1998) :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통사·의미적 논의의 재검토-조사류의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언어정보 2 : 27-81
 목정수(2002) :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 71-99
 목정수(2003가) : 한정조사 {이나}의 통사론과 서법 제약, 한글 260 : 113-148
 목정수(2003나) : 한국어-불어 대조 번역을 통한 구문 분석 이론 : 종결어미의 인칭 정보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54
 목정수(2003다) :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목정수·유현조(2003) : 한국어 동사·어미 범주와 주어 인칭의

상관관계, 어학연구 39(3)
 박형달(1976) : 현대한국어의 보조동사의 연구-기능적 언어분석의 시론-, 언어학 1 : 43-72
 백춘범(1992) : 단어결합과 어울림연구, 사회과학출판사, 한국문화사에서 영인
 서정수(1996) :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개정판), 한국문화사
 서태룡(2000) : 국어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국어학 35 : 251-285
 안명철(2001) :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 181-207
 안희돈(1991) :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Ph.D. 위스콘신대학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재훈(1996) : 국어어격주어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pp241-275
 연재훈(1997) :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 107-132
 유현조(2003) : 한국어 어미 구조의 문법적 포연성에 관한 연구-형태 분석에 기반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민(1976) :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 언어 1(1) : 61-73
 이춘숙·노용균(1998) :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식별 알고리즘,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pp353-357
 임동훈(1996) :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 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흥빈(1998) : 국어 문법의 심층 1, 2, 3, 태학사
 조의성(1995) :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조선학보 163 : 1-36
 조의성(2001) : 북한 단어결합론과 옛 소련 단어결합론 -60 문법을 중심으로-, 국어학 38 : 305-327
 최기용(1998) : '있-' 의 범주, 논항 구조 그리고 능력성, 국어학 32 : 107-134
 최현배(1961) : 우리말본 (3판), 정음문화사
 홍재성 외(1997) :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 두산동아
 홍재성 외(2002) :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문화관광부